

전북자치도교육청 출범 100일

교육자치 문 활짝 연다

9개 교육특례안 새로 발굴... 내달 1일 교육가족 만남의 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출범 100일을 맞아 교육자치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과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 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월 18일 출범했다.

지난 26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전북교육청은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위해 교육자치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출발을 앞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계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에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유학 등 4가지 특례

가 반영됐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12월 27일에 시행 예정인 이들 특례에 대해 그동안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연구과제와 타 시도 교육청 사례 등을 참고해 관련 조례 제정과 준비를 준비해 왔다.

TF팀과 전문가 자문, 세미나 등을 거쳐 지역 학교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실행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

전북교육청은 특히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추가 특례안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과 자체 감사권 보장 △인구감소 지역 내 만 2세 영아 입학 △조부모 육아휴직 △특성화교

등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인재 채용 등 9개 특례안을 새로 발굴했다.

전북교육청은 출범 100일을 기념해 다음 달 1일 교직원, 학부모, 학생과 지역주민 등 100명을 교육청으로 초청할 계획이다.

"100인에게 듣는다 -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이날 행사는 지난 100일 전북교육의 성과와 과제 등을 놓고 교육가족이 머리를 맞대는 장이 될 예정이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100일을 계기로 교육자치를 향해 발걸음을 더 크게 내디딜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 12월 시행되는 교육특례와 새로 발굴한 교육특례안이 더 특별한 교육자치를 활짝 열어 교육만큼은 전북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 26일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전주용소중학교를 방문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아침밥, 청소년기 학생에 매우 중요"

서거석 교육감, 전주용소중생 학생에 아침 간편식 제공

"간편식 질적 향상 위해 더 좋은 식재료 활용 방안 모색"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26일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전주용소중학교(교장 봉미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나눠주고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아침 결식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하는 '아침 결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신청한 15개 중학교 학생 1,375명에게 지난달부터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용소중학교는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주지역자활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달 1일부터 매일 아침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역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아침간편식을 제공하고 있다.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식재료 공급 및 모니터링 등의 지원업무를 맡

고 있으며 전주지역자활센터는 아침 간편식을 만들어 학교에 납품하고 있다.

아침 간편식은 제공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아침을 먹는 학생들과 담소를 나눈 뒤 봉미자 교장 등이 학교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침결식 개선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아침밥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침 간편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 좋은 식재료를 활용해 맛과 건강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박노준 우석대 총장, '바이

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실천 캠페인 '바이 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생활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환경부가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부터 지목을 받아 이 챌린지에 동참하게 된 박노준 총장은 다음 주자로 봉주현 경기도체육회 이사와 이다연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사격 더블트랩 개인전 금메달리스트를 추천했다.

박노준 총장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일상생활 속의 작은 실천은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선택이다"라며 "탄소중립과 함께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다음 2022년 ESG 비전 'GREEN WOODSUK'을 선포하고 △제로 플라스틱(ZERO PLASTIC) △제로 이산화탄소(ZERO CO₂) △제로 블록(ZERO BLOCK)의 '3 ZERO'를 실천하고 있다. /원주=염재복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개별화교육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6일 창조내세 시청각실에서 '개별화교육 연수'를 개최했다.

개별화교육은 각급 학교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의 장애 특성·능력·교육적 요구·선호 및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공하는 교육이다.

이날 연수에서는 경남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가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개별화교육 운영 실제'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관리자, 교사, 전문직 등 620여명이 참석해 개별화교육 수업을 위한 정보와 노하우를 얻고, 운영 방식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개별화교육은 개별 학생을 위해 정교하게 작성된 법적 문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의미도 지니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개교 60주년... 동문들 기부 릴레이

장학금 2000만원 쾌척 교수·직원 재직동문회 각 1000만원씩 기부도



전주대 총동문회는 지난 26일 오후 2시 대학본관에서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전주대학교의 100년을 향한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총동문회 전체 회원의 마음을 모아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하며 20명의 후배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총동문회로부터 개교 60주년 기념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2,000만원을 쾌척 받았다.

전주대 총동문회(회장 임정엽)는 지난 26일 오후 2시 대학본관에서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전주대학교의 100년을 향한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총동문회 전체 회원의 마음을 모아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20명의 후배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천장(교수)재직동문회 및 직원재직동문회도 함께 참여해 각 1,000만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전달하는 등 총 4,000만원의 동문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임정엽 총동문회장과 총동문회 회원을 비롯해 천장(교수)재직동문 이준걸 회장과 직원재직동문 송대진 회장, 박진배 총장 및 장학금 수여 학생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임정엽 총동문회장은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전주대학교가

지금 이 자리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장학금을 통해 우리 후배들이 학교를 빛내는 슈퍼스타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진배 총장은 "올해 전주대는 개교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 모교의 발전을 응원해 주는 9만 동문이 있기에 앞으로 펼쳐질 100년이 더욱 밝은 것이라면서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기부해 준 총

동문회와 천장(교수)재직동문회, 직원재직동문회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개교 60주년을 맞아 다가오는 5월 2일 개교기념일에 기념 예배 및 기념식이 10시 예솔관 JJ 아트홀에서 열리며, 개교 기념 축하 주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학생회관 앞 축하 행사, 대운동장 전주국제영화제 상영, 명예박사 학위 수여,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글로벌대학협의회, 전북대서 첫 정기총회 개최

협의회 신규 회칙 제정

글로벌사업 현안 논의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 대학들이 연대와 협력을 위해 만든 글로벌대학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가 최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갖고 신규 회칙 제정을 비롯한 글로벌사업의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글로벌대학협의회 초대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해 글로벌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총장 및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또한 교육부 박성하 지역인재정책과장이 참석해 향후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관리와 홍보강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글로벌대학협의회 회칙을 제정하고, 글로벌대학협의회의 올해 예산 및 협회비 분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본격적인 협의회 사업으로 글



글로벌대학협의회가 최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갖고 신규 회칙 제정을 비롯한 글로벌사업의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양오봉 전북대 총장 등 참석자들이 정기총회를 마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로컬대학의 비전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기 위한 해외 우수기관 방문 및 해외 우수기관 전문가 초청 국제포럼 개최, (가칭)글로벌대학30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대학 간 소통 채널 구축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양오봉 총장은 "지난해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다

른 지역 대학들의 혁신 모델로서 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와 포용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교육부와 글로벌대학들이 함께 우리 글로벌대학협의회를 통해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어려운 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학교도서관 공간 혁신

학교생활의 질 높인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올해 24개 학교서 추진

소통·학습·휴식 등 가능 복합문화공간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교도서관 공간 혁신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독서에 대한 흥미와 문해력을 높이고 디지털 세대들의 자기표현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4개 교의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래형 학교도서관은 기존의 학교도서관을 학습과 토론, 놀이와 휴식,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도서관이다.

학생들이 소통·협력, 학습, 휴식 등을 통해 학교생활의 질을 높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놀이활동과 창의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활동중심 공간으로, 중학교는 미디어 활용 및 협력수업이 가능한 소통중심 공간으로, 고등학교는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중심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29일 사업 대상 학교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형 학교도서관 공간구성 가이드라

인(수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재인 교수) △ 공간혁신 방향 △ 사업 추진 절차 △ 2023년 조성사례 안내 등이다.

향후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매뉴얼 제작·배포 △설계도면 기초·학교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등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 △관리자 우수사례 기관 견학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단 공간혁신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위학교의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을 지원해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104억5,000만원을 들여 111개교에 미래형 학교도서관을 조성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2022년부터 추진한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사업이 3년차를 맞아 다양한 우수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자동화시스템 구축, 학교도서관 전문·봉사인력 확대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기전대, 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한국 법령 이해 교육'

전주기전대 교무학생처 유학생 학부 지원센터는 지난 26일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180 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한 필수 교육이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법령의 이해를 통해 한국에서 자신의 안전

을 지키고 적응을 돕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정의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사례 △대처 방안 및 신고 절차 안내 △위험 및 제한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 신고 절차 △교통법규 및 사고 예방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재훈 기자